와! 김희선 억수로 변했네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4일 화요일 제2808호 www.metrobusan.co.kr

소지에만 있는 쌍둥이 변기

일본 총운임 122,600원~
중국 총운임 128,800원~
동남아 총운임 193,600원~
판매기간 2014년 2월 5일 11시 ~ 2월 1일
AIR BUSAN

'남자 크레용팝' 가봤자 아재요 p/17

SNS로 들어간 뉴스 읽힐까

페이스북, 신문+잡지 장점 살린 뉴스 앱 '페이퍼' 출시
카카오도 3월 여전 서비스 예정…'SNS 뉴스시대' 주목

하루 5억 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4일(한국시간) 뉴스 앱 '페이퍼'를 출시한다.

페이퍼는 모바일 골칫품이 내놓을 수 있는 궁극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어 기존 언론사는 물론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모바일 환경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모바일 콘텐츠 기업 카카오가 1분기 내 페이퍼와 경쟁하는 뉴스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커 'SNS 뉴스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페이퍼는 한마디로 신문처럼 보는 잡지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신문의 정확성과 속도에 잡지의 다양성을 갖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지루할 틈이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과 추신수의 활약상이 궁금하면 '스포츠' 섹션을 구독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알고 싶다면 '푸드'와 같은 코너를 구독 설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류현진의 활약상을 ESPN과 같은 메이저 언론사에서 보도할 수도 있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관전한 개인의 페이스북 글이 독특하게 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페이퍼는 IT 생태계를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국단적으로는 현재 TV나 라디오, 신문에 나오는 모든 콘텐츠를 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소소한 뉴스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 페이퍼가 상반기까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할 경우 콘텐츠를 제휴하려는 파트너는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구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IT 블랙홀'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수년째 페이퍼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어 온 것만 봐도 이 서비스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기존 페이스북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은 모바일에서 나왔다.

카카오도 페이퍼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는 국내 유저는 많지 않으나 페이퍼 덕에 메신저를 갈아탈 공산은 얼마든지 있다.

카카오 역시 관련 서비스를 위해 다방면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누가 페이퍼나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에 콘텐츠를 공급할 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등 뉴스 콘텐츠는 맞춤형 잡지 스타일을 표방하는 만큼 중소 규모의 언론사나 개인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뉴스를 접점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산업 전체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상품과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국회의원 전원 단체촬영 66년 만이네요" 제19대 국회의원들이 3일 국회의사당 정현관 본회의 앞 계단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전 국회 사무처 직원의 촬영 자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단체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 뒤 제헌 국회의원 198명이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수당받 go, 스펙쌓 go, 취업하 go

2014년도 부산인력개발원 취업교육생 모집 [국비지원 채용예정자과정]

100% 취업알선 • 자격증 취득 • 교육비, 기숙사, 식비 전액무료
매월 2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가능

모집학과	1년	2년
컴퓨터응용기계과	90명	30명
컴퓨터응용설계제작과	90명	30명
신재생형상디자인과	90명	30명
자동화기계과	60명	30명
자동화시스템제어과	60명	30명

※ 교육기간, 인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2014년 02월 26일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 방문접수

최근 2년 취업현황
2012년 01월 수료생 취업현황 (취업률 94.37%)
수료인원 355명중
CJ제일제당(주) 등 212업체 335명 취업
2013년 01월 수료생 취업현황 (취업률 94.55%)
수료인원 275명중,
삼성전기 등 170업체 260명 취업

※ 입학 지원인원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검색창에 부산인력개발원 을 쳐보세요

http://ps.korchamhrd.net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상담전화 ☎ 051) 610-3121~3

아역스타 향한 '마녀사냥'

기자 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역배우 김새론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김새론의 친구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과 글 때문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와인병이 놓여있는 탁자를 배경으로 김새론과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김새론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또 다른 사진에는 탁자에 담배가 놓여있다. 미성년자임에도 술과 담배를 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 네티즌들은 김새론이 실제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새론은 물론 그날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친구까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저는 이 사진 중에 한 명이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라며 "새론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더 친해지고 싶어 집에 초대했습니다"라고 모임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새론 역시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확증편향(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것)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말이다. 김새론의 해명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의 해명은 쇠귀에 경 읽기가 됐다.

소속사가 3일 "논란이 확산될 시 소속사 차원에서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지만 이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과 김새론의 해명을 떠나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800ℓ 라더니 무려 16만ℓ

여수 원유유출량 GS칼텍스 추정치 200배 넘어 축소 논란… "사고 원인은 도선사 실수"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원유 유출사고로 유출된 원유가 애초 발표보다 200배가 넘는 16만4000ℓ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여수해경은 3일 '우이산호 충돌 오염사건' 중간수사 발표에서 "우이산호는 여수항 도선사지회 소속 도선사 2명이 탑승해 원유부두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안전한 속력을 넘어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해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원유부두시설인 원유이송관 등 3개의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 약 164㎘(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ℓ 들이 820드럼에 이르는 양으로 사고 초기에 GS칼텍스 측이 추정한 800ℓ의 205배, 수사 초기 해경이 추정한 1만ℓ의 16배에 이르는 것이다.

해경은 이번 유출량 추정을 30인치 남시, 36인치 원유, 18인치 유성혼합물 등 3개의 파이프에 들어 있는 기름 용량을 근거로 했다.

결국 회사 측 추정 유출량을 토대로 방제 계획을 세웠던 해경은 초동 조치에 문제를 노출했고, 유출된 기름은 이미 먼 바다로 퍼지고 말았다.

◆ 4일째 기름 제거 총력전

한편 사고 4일째인 이날 여수시 공무원 200명을 비롯해 해경 기동방제팀 17명,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경찰교육생 100명, 한국해양구조협회 30명, GS칼텍스 116명, 함민정 60명, 소방서 50명, 신덕마을 주민 290여 명 등 900여 명이 투입돼 기름 방제 작업을 폈다.

피해가 큰 신덕마을 현장에는 매일 1000여 명의 인력이 해안가의 바위나 모래에 들러붙은 기름을 제거하는 '갯닦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윤 기자 mk@metroseoul.co.kr

초·중·고 봄·가을 '관광방학'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봄·가을에 '관광주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 초·중·고교도 재량 휴업으로 단기 방학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관광진흥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몽준 "시장 출마 당 요청 가볍게 생각 않을 것"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정 의원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결심과 관련해 "너무 늦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당의 견해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수능 한국사 쉽게 절대평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 시험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된다.

교육부는 3일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화에 따른 사교육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사 사교육 수요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험 난이도로 현행 교원 임용시험의 자격 기준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보다 쉬운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출제 경향과 예시 문항을 개발, 일선 학교에 한국사 학습 방법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 문항을 검증할 예정이다. /윤다혜 기자

이번엔 만날까…남북 오늘 이산상봉 실무접촉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3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5일 실무접촉에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5일 또는 6일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해왔고 정부는 곧바로 "북측이 우리 측의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5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북한의 이날 입장 통보는 우리 정부가 이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지난달 27일 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제일 빨리, 최대한 빨리 (상봉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실무 접촉 하루 전인 4일 대표단 명단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최소 2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실무 접촉으로 애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정필 기자

제과·제빵
노동부평가 6년 연속 A 우수기관 선정
■ 계좌제훈련(내일배움카드)
· 모집기간 : 2014. 2.17 까지
· 훈련기간 : 2014. 2.10 ~ 4. 4 까지 (2개월 6시간)
· 훈련비용 : 전체훈련비용의 30% 본인부담
노동부 지정 수영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 051) 753-4949
www.sybakery.co.kr

安 보란듯…민주, 의원소환제 등 '특권 내려놓기법' 추진

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입법을 추진한다.

김한길 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특권방지법안은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담고 있다. 정치자금 편법 모금 창구로 지적돼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법안도 포함된다.

선물·향응·경조사 금액은 4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김 대표는 또 부정부패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외 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비용 지출과 선물·향응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선환 기자

'입춘 한파' 오늘 서울 영하 10도

입춘인 4일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맹추위가 이어지겠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4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밖에 경기 북부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에도 영하 6도 안팎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다"며 "어린이와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종무장' 9하 5도까지 떨어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목도리와 장갑으로 중무장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뉴시스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다.

추위는 5일까지 이어지다가 6일 낮부터 영상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윤다혜기자 yunh@

결심공판 출석한 이석기 이석기(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해 피고인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받고 조폭 뒤 봐준 강력반 형사

서울중앙지검은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돕는 등 뒤를 봐주고 뇌물을 받긴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명수배된 장안파 행동대원 정모씨를 검거하지 않고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고급 호텔 숙박비 대납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0년 3월 정씨를 만나 "검문이나 음주에 걸리면 빨리 전화해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도 폭력조직원과 수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며 정씨 등 조폭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박모(37)씨 등 폭력조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윤다혜기자

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1심 선고 17일 이전 나올듯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 나와 진보당에 씌워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는 요지로 최후 변론을 했다. 1심 선고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윤현성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미국 초대 대통령에 조지 워싱턴 선출

1789년 2월 4일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아메리카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독립전쟁을 이끈 그는 영국군과의 마지막 격전 끝에 요크타운에서 콘월리스 장군을 항복시켜 사실상 전쟁을 끝냈다. 이후 그는 제헌회의를 이끌면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으며 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이 됐고 3년 후 워싱턴은 제2대 대통령에 또다시 선출됐다.

서울 석촌호수 폐사 집오리 'AI 음성'

독감 비상 A형 독감 B 유행하면서 3일 오후 용산구 소화아동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석촌호수에서 죽은 채 발견된 집오리 등 서울지역 야생조류 폐사체 13마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는 총 10건 18마리로 이중 5건 13마리가 AI 음성으로 판명됐다. 나머지 5건 5마리는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시는 폐사체 발견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해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발견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과 예찰 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송파구 석촌호수와 강동구 길동에서 집오리 1마리와 까치 3마리가, 25일에는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왜가리 1마리가, 27일에는 강동구 강일동에서 야생오리 1마리가, 28일에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검은머리딱새 7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윤다혜기자

2014년은 기초 고용질서 확립의 해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
-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50% 가산된 임금 지급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상담·신고문의) 국번없이 1350 1644-3119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수입 쇠고기에 표시돼 있는 수입유통식별번호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을 통한 수입 쇠고기 이력정보 확인 방법은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입쇠고기유통이력조회창에 수입유통식별번호 12자리 입력 후 조회하시면 수입 이력(원산지, 유통기한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안심장보기' 앱을 통해서도 수입 쇠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제공

"도시계획 이젠 개발→재창조"

부발연 보고서·"시민 요구 걸맞는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어려움"

부산은 도시 발전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개발 중심에서 재창조로의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3일 BDI 포커스 '재창조 시대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산은 과거 만성적 도시 문제인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역 기업 증가와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복지비 증가 등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수 연구위원은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개발 중심에서 재창조로 정책 전환 ▲복합화·입체화를 통한 토지효율성 제고 ▲통합 행정 중심의 도시정책 실행방식 전환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항과 도심철도 재배치 사업을 시작으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과거 신개발지 중심의 도시 발전기에서 재개발 중심의 도시 재창조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시설 중심의 도시계획 시설 입지 결정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현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복합시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복합시설 도입과 복합개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부처 간 모든 공간계획 사무의 통합 조정 기능을 회복하는 혁신과 조정력이 필요하다"며 통합 행정 중심의 도시정책 실행방식 전환도 주문했다.

또 "도시정책 수립 과정의 시민 참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도시 내 지역 문제에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확대하고 소통 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저비용 소프트 기반시설 확대와 운영 혁신, 복합화·입체화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도입 추진, 도시계획 분야 행정 전문성 확보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진영 독자 미화 교과서 채택 철회하라" 3일 부산 남구 부성고 앞에서 참교육 학부모회 등 부산지역 진보단체로 구성된 친일 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부산네트워크 회원들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부성고는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독 채택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아이스발레단 스펙터클한 무대

6일부터 영화의전당서

영화의전당은 유럽의 깊은 문화적 전통을 가진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아이스발레단인 '우크라이나 아이스발레단'의 예술감독이자 유럽 챔피언이기도 한 드미트리 드미첸코를 비롯해 유럽의 피겨대회에서 수습 경력을 가진 무용수들이 영화의전당 아트스케이트장을 찾아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아이스발레단은 아이스발레의 우아한 예술성과 함께 장르의 다양성과 흥미로운 드라마적 요소, 서커스와 같은 미스터리하고 스펙터클한 기술 등 절정의 오락성을 가미해 스케이트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후 1시와 오후 7시 두 번에 걸쳐 매회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1시에 진행되는 1부 공연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주제로 한 아이스발레가 공연된다.

오후 7시의 2부 공연에서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팝 음악에 맞춘 갈라 공연으로 구성해 아트스케이트장을 찾은 고객들이 두 개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피겨댄스 챔피언들의 피겨 강습도 진행된다.

이번 공연 기간 중 챔피언들이 아트스케이트장에 상주하면서 사전 예매자와 현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겨의 매력적인 기술을 가르쳐줄 예정이다.

강습에 대한 문의 및 예약은 전화(051-780-6136)로 하면 된다.

/서하늘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특수학교 성추행사건 징계 재심의해달라"

임혜경 시교육감 재심의 요청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특수학교 장애 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에서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시교육청이 내린 징계 결과에 대해 '수위가 너무 낮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임 교육감이 수용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관계자 12명 중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가해 교사와 불문(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시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다른 특수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 내용을 검토했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 교육감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3명에게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대상자 4명은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벌여 특수학교와 시교육청 징계 대상 12명에 대해 중징계(7명)와 경징계(5명)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중징계 5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불문 3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전통된장 이렇게 담가요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는 전통 장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희망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19일 오후 2시 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의 장, 슬로푸드 그 이상의 것'이라는 주제로 '전통 된장 담그기'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공개 강좌 이외에도 전통 음식에 관심 있는 시민과 가족을 위해 2월 중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북구에 있는 부산시 전통 음식 상설체험장(북구 덕천로 381번길 17-31)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에주 만들기 체험'(16일), 된장·고추장·쌈장 만들기 실습 교육(20·21·27·28일)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nongup.busan.go.kr) 어울공간에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산자원팀으로 전화(051-970-3721~2)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쇼핑몰 창업 강좌

부산시 여성회관(관장 박의숙)은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1회 인터넷 쇼핑몰 창업 강좌'를 마련한다.

강좌는 ▲쇼핑몰 기획 ▲쇼핑몰 디자인 이해 ▲쇼핑몰 마케팅 ▲쇼핑몰 창업 준비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꾸미기, 정책분석 등 쇼핑몰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15회 과정(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으로 운영된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18일까지 여성회관 홈페이지(woman.bu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cho6802@korea.kr) 또는 여성회관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30명으로 신청자 중 파워포인트와 인터넷 사용 가능자 위주로 선착순 접수한다.

문의 여성회관 창업지원센터 051)610-2014

차요일제 참여하고 인센티브 받자!

공영주차장 주차료 반값·영화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부산시가 '2014년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교통 시책으로 2010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경품 이벤트 등 혜택을 늘려 참여 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부산시는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무선주파수검지기(RFID) 전자태그를 활용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 중이다.

이들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할인가맹점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참여 시민에게 영화의전당과 메가박스(덕천)의 관람료 할인 및 외식업 요금 할인 등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참여자에게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경품을 지급하고, 트위터·페이스북 시어버 지방청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참여 캠페인 전개와 공공기관, 기업체, 대형마트, 대단지 아파트 등을 방문해 현장 접수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승용차요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승용차요일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중교통 파업일, 대입 수능일, 근로자의 날 등에는 운휴일을 해제함으로써 참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인 승용차요일제 공영주차장 월 주차 요금 할인(20%)도 적극 홍보해 참여 시민에게는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국 최고의 공공부문 혜택'을 줄 계획"이라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저단소 녹색교통 시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혁균기자 jhk@metroseoul.co.kr

추도산 물메기 말리기 '한창'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에서 어민들이 겨울철 주 소득원인 남해안 특산물 물메기를 말리고 있다. 추도산 물메기는 전국에서도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물메기는 1축(20마리)에 8만원에서 15만원 선에서 팔리고 있다. /뉴시스

마술 한번 배워볼까

11일 강좌 개강 2개월간

요즘 여가 시간에 마술을 배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기 마술사들의 멋진 공연 덕에 마술 프로그램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자, 마술을 직접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사)한국 마술협회 부산시지부 한국매직쇼 교육센터다.

올해 86세가 된 하명석씨는 4년 전 늦깎이 수강생으로 센터를 찾아왔다. 그는 현재 어엿한 실버 마술사로 활동 중이다. 하명석씨와 같은 실버 마술사들이 모여 결성한 실버 마술단은 작년 '생생 투데이'라는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또 충주는 마술사로 알려진 금빛나, 노래하는 마술사 최준, 코미디마술의 어정은 마술사를 비롯한 부산의 수많은 마술사들이 조영춘 회장과 마술센터를 통해 양성됐다.

이 밖에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한 (사)한국 마술협회부산시지부 한국매직쇼 교육센터마술봉사단의 봉사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마술을 배워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오는 11일 제56기 마술지도자 강습 개강을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10분부터 9시까지 총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40가지 이상의 다양한 마술을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게 구성됐다.

센터 관계자는 "마술뿐 아니라 웃음건강박수 창시자로 잘 알려진 경력 33년의 마술사 조영춘 회장의 강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더욱 폭넓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의 051)441-7875

/정혁균기자

부산우리들병원 공동 간병인실 운영

부산우리들병원(병원장 황범욱)은 지난달 24일 한국간병 간병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2월 3일부터 공동 간병인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공동 간병인실 운영은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명의 간병인이 4명의 환자를 돌보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동 간병인 서비스는 병실을 지정해 여러 명의 환자가 공동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이는 1인당 간병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환자 및 보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당분간 4인실 2개 규모로 공동 간병실을 운영해 추이를 지켜본 후 점차적으로 병상 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설치

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은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청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15곳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 131명이 투입되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체제를 가동,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 금품선거 ▲흑색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에 대비해 사이버 수사요원 78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각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 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은 6월 20일까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3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 전담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총동원해 선거 분위기 과열을 막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www.danan.kr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은
내시경에 발각되어 끝나다니!
무럭무럭 자라서 주인님을 괴롭힐거야!
대장 내시경은 천공등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대장 내시경 추구
다나은내과의원
639-5333~4

market index <3일>

코스피	코스닥
1917.90 (-21.19)	513.02 (-1.58)
금리	환율
2.88 (변동없음)	1080.00 (+14.00)

금융사랑방버스 251회 운행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가 출범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 총 251회 운행해 5553명에게 금융 상담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주당 평균 3.5회 운행했으며 회당 평균 22.1명을 상담한 셈이다.

금융사랑방버스는 생계활동에 바쁜 소외지역의 서민을 직접 찾아가 금융 민원 상담, 서민 금융 지원, 불법 금융거래 피해 접수, 금융교육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황혜빈 기자

美테이퍼링 확대, 한국에 불똥?

신흥국 증시서 자금 유출 러시에 "국내 수출 악영향" "악재 아니다" 분분

설 연휴 기간 중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테이퍼링이 신흥국은 물론 전 세계에 금융 쇼크를 줄 수 있다는 우려부터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도 "파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이 지난달 말 양적완화 추가 축소를 단행하자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달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총 122억 달러(약 13조 784억원)가 빠져나갔다"고 2일 보도했다.

유출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13억1300만 달러가 유출됐지만 마지막 주에는 63억 달러가 신흥국 시장에서 이탈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에 찬물"

이로 인해 회복세를 나고 있는 세계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에서 중국·러시아·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이집트·터키·우즈베키스탄·브라질 등 10개 신흥국 비중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에 취약한 신흥국들이 쓰러지면 국내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 당국도 이번 결정으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경우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 금융 불안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예측된 정도이고 미국 경기의 회복세를 전제하는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도 "최근 며칠 동안 신흥시장 금융 불안은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을 선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김민구기자 mil@metroseoul.co.kr

콩이랑 아이랑~
2014. 1. 3(금) ~ 2. 28(금)
장소 부산시민회관 한솔갤러리 문의 051. 630. 5200
※월요일 설날(1. 30 ~ 1. 31) 휴관
평일 체험회차 10:20(단체) / 11:40(단체) / 14:10 / 14:50 / 15:30
주말 체험회차 10:40 / 11:20 / 12:00 / 13:30 / 14:10 / 14:50 / 15:30 / 16:10
체험비 어린이 15,000원 / 성인 10,000원
할인 부산시민회관 문화사랑나눔 유료회원 5,000원 할인
주최 부산시설공단 주관 부산시민회관 제작 공감플러스프러덕션 | 문화인텐츠 판

마그네틱 현금카드로 인출 안 됩니다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자동화기기(ATM) 앞에 마그네틱(MS) 카드를 통한 거래 제한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융감독원은 마그네틱 현금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을 이날부터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그네틱 신용카드와 마그네틱 체크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및 신용구매 거래는 내년 1월부터 제한한다. /연합뉴스

'해외펀드' 환헤지 할까 환차익 볼까

신흥국 금융 불안에 각국 통화가치가 급변하면서 해외 주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환율 고민에 휩싸였다.

보통 증권사에서는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헤지형 가입을 권한다. 다만 통화 가치가 절상 추세에 있는 나라에 환노출형으로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해외펀드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환헤지형을 선택하는 쪽이 유리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수익률 집계를 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해외 주식형펀드 전체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3% 성과를 냈고 3개월 수익률은 -2.92%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해외 주식형펀드 환헤지형만 따져 보면 6개월엔 2.46% 수익을 기록했고 3개월엔 2.90% 빠졌다. 환헤지형은 펀드 수익이 덜 나는 측면이 있지만 손실 국면에서는 소폭 완충 효과를 낸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보다 기본 자산가치 전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약세가 전망되는 통화 자산에 투자할 때 환헤지를 하는 편이 좋다"면서 "그러나 환율 변동 폭이 좁은 편이며 비용 문제 등이 있으므로 환헤지의 장점이 적다면 기초자산 전망을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01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채탁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영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81

2007년 5월 3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06)

라이나생명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암·치매·사망

지금, 라이나에서 실버를 위한 다양한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61~80세라면 100세까지 길게 다양한 암 보장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 ☑ 61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보험
- ☑ 사시는 내내 암치료비 걱정 더시라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 ☑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음 *1회한, 암 종류별 보장내용 및 보장개시일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50~81세라면 나이·건강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

-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일시금 지급
- ☑ 질병, 재해, 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보장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 ☑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를 가입 당일부터 보장

*최초 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보장하지 않음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라이나 무배당 THE **큰보장**실버보험

- ☑ 치매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경증치매부터 보장
- ☑ 재해로 인한 입원, 골절, 화상 수술 보장 (선택 특약)
- ☑ 노년에 흔히 하는 폐렴, 천식, 간질환, 신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보장 (선택 특약)
- ☑ 처음 보험료 그대로 갱신 없이 80세까지 보장

*가입 후 2년 후에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치료보험금 지급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24시간 무료 상담문의

080-325-1100

국민보다 당황한 금융위 'TM금지' 무리수

Issue&View
카드대란 '정부 대응책' 관이

/박정원기자 ssw@metroseoul.co.kr

카드정보 유출 사태가 촉발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당사자들인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업계는 물론 정부와 전 금융권을 포함한 온 나라가 카드 사태 때문에 들썩였다.

한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카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건수는 카드 3사 정보 유출 발표 직후인 지난달 19일 349만 건 수준이었으나 정부 종합대책 발표가 있던 1월 22일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명절 연휴 직전인 1월 29일 조회 건수는 9만 건으로 첫날 대비 2.8%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지, 재발급도 1월 22일 해지 41만 건, 재발급 68만 선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지속해 1월 29일 기준 해지 신청은 12만건, 재발급 신청 18만 건 수준으로, 유출 조회 건수 감소와 함께 사실상 진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안이 이렇게 커지리라 예상치 못했던 금융 당국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쳐 대응안을 마련하면서 다소 무리수를 두는 점에도 내놓았다.

대표적인 예가 텔레마케팅 전면 금지 조치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팔려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 정보 유출과는 아무 상관없는 텔레마케터(TMR)들의 생존권마저 침해를 한 것이다.

◆금융당국 내부서도 엇갈린 반응

이 조치는 금융 당국 내부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정도로 논란이 됐다. 워낙 급작스러운 사태라 아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뇌관과도 같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미 통상 마찰까지는 안 가더라도 TMR들이 손해소를 청구할 경우 금융위가 마땅히 내놓을 카드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물론 금융사 직원들은 카드 사태를 해결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설 명절 연휴도 반납한 채 출근해 일을 해야만 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부서 직원들은 동양 사태부터 사력에 연이어 일이 터지는 바람에 주말이 없는 생활을 해오고 있다"며 "사안이 잠기되니다 보니 이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아직 카드사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남아있고 다른 금융권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향후를 대비해야 할 때다. 잘못에 대해 엄한 판단을 내리되 섣부른 결정으로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금융 당국,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더욱 총력을 쏟아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도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3개 카드사의 카드 해지 및 재발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카드사를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임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코스피 고점' 내려잡는 증권사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를 앞다퉈 낮추기 시작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상당수가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을 반영해 2월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를 지난달보다 하향조정했다. 올해 안에 코스피가 고점에 도달할 예상 시점도 당초보다 미뤘다.

교보증권은 이달 코스피 전망치를 1850~1990으로 1월 1950~2100보다 상단, 하단 모두 낮췄다.

KDB대우증권도 1900~2030으로 1월(1950~2100) 대비 하향조정됐고 NH농협증권 역시 2월 1900~2030으로 1월 1930~2070보다 소폭 낮아졌다.

일부 증권사는 연간 코스피 등락 예상범위를 이에 동제로 변경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1850~2320에서 1800~2200으로 낮추고 연중 고점 기록 시점을 오는 4분기로 지연했다.

/유현희기자 hhyun1@

17일부터 농협·롯데·국민카드 3개월 영업정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 3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카드사들의 10일간 소명 절차를 거쳐 14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는 물론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여행업 등 부대 업무까지 전면 금지된다. /뉴시스

무릎골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다음과 같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① 임상시험 내용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CPT30과 아세클로페낙의 실약 또는 위약을 1일 2회 8주간 경구 투여한 후 약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입니다.

② 연구에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중인 CPT30 300밀리그램 실약 또는 위약
▶ 골관절염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 아세클로페낙 100밀리그램 실약 또는 위약

③ 참여 대상
▶ 무릎 골관절염을 가진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남녀
▶ 무릎에 중등도 이상의 골관절염 통증이 있으며, 최근 3개월간 무릎 골관절염 증상이 연속적이었던 자

④ 방문 횟수 최대 13주 동안 6회 (이상반응 등의 사유로 추가 방문 가능)

⑤ 모집 기간 2013년 12월 01일 ~ 2014년 5월 31일

⑥ 참여에 따른 제공사항
▶ 연구를 위하여 수행되는 검사 및 진료(골관절염 증증 평가, 혈액, 뇨검사, 심전도 검사 등)
▶ 임상시험용의약품(CPT30 300밀리그램 아세클로페낙 100밀리그램 실약 또는 위약)
▶ 소정의 교통비 지급

⑦ 참여기관
강남세브란스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⑧ 참여 방법 본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모집 문의안내 | 1544-4088

외부인·퇴직직원도 보는 보험가입자 신상

푸르덴셜생명·삼성화재 등 고객정보 관리 도넘은 부실

주요 보험사들도 고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담긴 전산 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

고객정보 관리 부실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보험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개인 보험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보험개발원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다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손보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장애담보조회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험 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 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이 밖에 삼성화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접속 시 공인인증서 등 별도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직원이 재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4293회나 고객정보를 조회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정보에는 질병, 수술 내역, 사고 현황 등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외부로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nj@

누구나 당일 대출
상담전화 070-4823-3203

의료관광 연계 안정적 임대수익 '쏠쏠'

분양돋보기

■ JK 라마다 앙코르 제주 호텔

공항서 자로 5분 거리 분양가 1억5000만원대

라마다 제주 호텔 디럭스 내부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상품의 차별화가 한창인 가운데 제주 시내 최초로 의료관광과 연계한 분양형 호텔 '라마다 제주'가 눈길을 끈다.

의료관광 시장은 최근 해외 환자의 급증과 함께 블루오션으로 손꼽히는 영역이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의료관광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한 이래 3년 만에 건강 관련 여행(의료관광) 수입이 1억 달러를 돌파했을 정도다.

1억 달러 기록은 1년 만에 또다시 갱신.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의료관광 수입은 2억680만 달러에 이른다. 전년보다 39.3% 증가한 규모로 '라마다 제주'가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할지 기대된다.

◆ JK메디컬그룹 시행 … 성형 관광 패키지

제주도 제주시 연동 270-2번지 일대에 공급되는 라마다 제주 호텔은 지하 3층~지상 12층 1개 동 전체 225실 규모다. 전용면적 19.43~22.68㎡로 구성된 디럭스 5개 타입과 30.03~50.03㎡로 이뤄진 스위트 4개 타입으로 설계됐다.

사업 시행은 JK성형외과가 대주주로 있는 JK메디컬그룹에서 맡았다. JK성형외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증한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1호로서 2011년부터 3년 연속 해외 환자 유치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경욱 라마다 제주 분양팀장은 "성형을 하러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제주 관광 패키지 상품을 제공, 호텔 가동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JK성형외과를 찾는 해외 환자들이 많은 만큼 기본적인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제주국제공항이 차로 5분 이내 거리고 종합시외버스터미널, 비오는거리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예정), 동문시장, 제주도청 등 편의시설과도 가깝다.

◆ 가동 첫해 확정 수익 지급

모델하우스는 지난 1월 27일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 이래 매일 100여 명씩 방문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한 방문객은 "제주에서 분양하는 호텔은 많지만 라마다 앙코르 제주는 시행사가 탄탄하고 의료관광과 연계돼 안정적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며 "라마다 호텔만의 매뉴얼에 따라 깔끔하게 꾸며진 객실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견본주택 내 마련된 디럭스·스위트 2개 타입의 유닛은 향후 공급될 호텔 내부를 그대로 재현했다.

분양가는 공급 호수가 가장 많은 D타입 기준으로 1억5000만~1억6000만원대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실투자금은 7500만~8000만원 수준이다. 가동 첫해 실투자금 기준 11%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준공 이후 담보대출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금리 5%)도 지원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인근에 마련됐다. 준공은 2016년 2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뚝뚝 떨어지는 월세… 10개월 연속 하락

수도권 0.2%↓ … 오피스텔 낙폭 가장 커

월세가격지수 및 변동률 추이

월세 전환 물량의 꾸준한 증가와는 달리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월세 가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8개 시·도 월세 가격이 전월 대비 0.1% 내려 10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지역 모두 0.2%씩 하락했다. 이 중 서울 강북(-0.1%)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했으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락세가 유지됐고, 강남(-0.4%)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와 임차인의 전세 선호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내림폭이 컸다.

지방광역시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대구(0.1%)는 혁신도시 이주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소폭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부산·광주는 보합, 대전·울산은 각각 0.2%, 0.1%씩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0.3%로 낙폭이 가장 컸다. 이어 연립·다세대(-0.2%), 아파트(-0.2%), 단독주택(-0.1%) 순으로 내렸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단독주택(-0.2%)을 제외하고는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아파트 모두 0.3%씩 빠졌고, 지방에서는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은 0.1%씩 내렸지만 연립·다세대와 아파트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월세 이율은 8개 시·도가 0.8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0.79%와 0.84%로 전달과 같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린 0.75%를 기록한 가운데 강남 11개 구가 0.73%로 가장 낮았다. /박선옥기자

단독 장점 그대로 살린 '동서남북 테라스 하우스'

삼성물산이 새롭게 선보인 '동서남북 테라스 하우스' 디자인이 적용된 아파트 저층부 이미지

단독주택의 장점을 그대로 적용한 아파트가 등장한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동서남북 테라스 하우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아파트 디자인을 선보이고 이르면 올해 분양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저층부 아파트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총 9개의 디자인 신개념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기존 테라스 하우스가 전면에 만 테라스를 뒀다면 동서남북 테라스는 정면, 뒷면, 측면에 개별 테라스를 두고 용도에 맞는 외부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면 테라스는 텃밭·정원에, 측면 테라스는 운동·휴식, 뒷면 테라스는 취미·조리 활동에 유용할 전망이다.

또 1층 세대에 복층 구조로 지하층을 주고 지하 연결 통로를 통해 전용 주차공간 및 테라스로 연결되는 독립 동선을 제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삼성물산은 하우스스타일, 생각나무 유경건축과 협업해 이번 동서남북 테라스 하우스 및 1층 특화 세대를 개발했다. /박선옥기자

공연9급 웃음레크리에이션 치료사(남·여) 자격강좌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

개강일시: 2014년 2월 13일(목) 오후 7시~9시(120분수업)

개강기간: 매주 목요일 12주강 실시(3개월)

주요내용

지도교수

제56기 마술(MAGIC)강습(남·여)

개강일시 2014년 2월 11일(화) 오후 7시~9시(120분수업)

매주화요일(8주간) 실시함(2개월)

1. 작은파티가 커지는 사회 테이블마술 2. 주머니마술 3. 초능력마술 4. 생일파티마술 5. 프로포즈마술 6. 스테이지마술 7. 생활마술 등

☎ 441-7895

사단 세계웃음건강박수협회 · 한국웃음치료사연합회

협민 한국레크리에이션교육협회 · 한국마술협회부산지부

신내동에 의료안심주택 222가구 공급

전국 처음 … 이달 중 착공 긴급구조 가능 시스템 구축

입주민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연결되는 전국 최초의 '의료안심주택'이 이달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건너편에 의료안심주택 222가구를 이달 착공, 내년 2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5월 입주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첫 의료안심주택은 지하 1층~지상 7층,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18㎡ 92가구 ▲29㎡ 130가구로 이뤄진다.

주택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생활리듬체크시스템 ▲무장애(barrier free) 공간 ▲케어센터 ▲커뮤니티존 ▲텃밭·양봉장 등을 갖춘 옥상 등 계획 단계부터 입주민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 가운데 생활리듬체크시스템은 집 안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입주자가 일정 시간 현관문이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되는 체계다. 이를 통해 홀로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욕실에는 응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소로 연결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서울의료원이나 119센터 등으로 바로 연계해주는 '쌍방향 안전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집 안팎을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 집 밖에서 단지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고 복도 폭을 2.1m까지 넓혀 양방향으로 휠체어가 다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 1층과 2층, 옥상으로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케어센터, 복지시설, 공동 텃밭 등을 조성한다. 특히 옥상에는 입주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 텃밭과 양봉장을 조성, 향후 이곳에서 생산한 채소와 꿀을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선옥기자

삼성전자의 소치 동계올림픽 마케팅 광고 한 장면 /삼성전자 제공

빙상 금광 뚫는 삼성·대한항공

썰매 미는 대우·롯데 등 재계 동계 스포츠 지원 열기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기업의 경우 한국 선수단이 출전한 13개 전 종목에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지난 1997년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사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빙상 종목 전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꿈나무육성, 국제대회 참가 지원, 외국인 코치 영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선수 저변 확대에 노력 중이다.

대한항공은 2011년 3월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실업팀을 처음으로 창단해 소속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팀 연고지를 겨울 스포츠 불모지 제주도로 정해 제주도의 동계 스포츠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빙상 연맹의 공식 후원사인 KB국민은행은 피겨 여왕 김연아를 주니어 유망주 시절부터 발굴 지원했고, 심석희 등 새로운 유망주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역대 최대인 2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썰매 종목, 올림픽에 최초로 출전하는 컬링에도 기업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과 후원계약을 맺고 2018년까지 훈련비 및 썰매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도 썰매 종목 후원에 적극적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일 루지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소치 동계올림픽 출정식 및 메달 기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신세계는 컬링 강국 도약을 지원한다. 신세계는 대한컬링경기연맹에 2018년까지 100억원 상당의 후원을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제1회 신세계 이마트 한국컬링대회를 개최했다.

CJ는 대한스키협회 설립 이후 최초의 기업 후원사다. CJ는 한국 스노보드 선수 최초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김호준(스노보드 하프파이프)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5위에 입상한 최재우(프리스타일 모굴스키) 등 유망주에게 2015년까지 후원금과 용품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기자 ksgt@

고학력 백수 300만 돌파

청년 구직난·대졸 은퇴자 증가 겹쳐 전년비 3.2% 늘어

일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고학력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심각한 청년 구직난에 고학력 은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307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98만3000명)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100만8000명으로 2012년(99만6000명)보다 1.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7만1000명으로 전년(198만7000명)보다 4.2%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59만2000명(전문대졸 48만6000명, 대학교졸 이상 110만7000명)에서 1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 2005년 15% 선을 각각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18.98%까지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10명 중 2명꼴이다.

이런 증가에는 고학력화의 영향이 컸다.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30%대에 머물다가 1995~96년 50%대, 1997~2000년 60%대, 2001~2003년 70%대에 이어 2004년부터 80%대로 올라섰다.

학력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고학력 취업자도 늘고 있다.

대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520만 명대였으나 2012년 10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55만9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42.1%에 해당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소치올림픽 큰 화면으로 보세요" 3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대형 TV를 선보이고 있다.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가운데 이마트 측은 오는 말일까지 특설 TV 행사 매장을 구성해 금액별로 최대 10%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1월 국산차 실적보니 기아차만 울상

지난 1월 국내 자동차 판매 현황 집계 결과 현대차와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기아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와 그랜저, 싼타페, 투싼ix가 효자 노릇을 했다. 신형 제네시스는 3728대가 판매돼 올해 연간 목표인 3만2000대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그랜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1156대 더해지며 8134대를 기록, 내수 1위에 올랐다. 반면 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456대로 전년 대비 53.8%가 줄었다.

한국GM은 스파크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4%가 증가했다. 특히 크루즈와 캡티바, 올란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르노삼성은 SM5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QM5는 603대가 판매돼 133.7%의 증가율을 보였고 SM7도 69.9%나 늘어났다.

쌍용차의 내수는 코란도 삼총사가 살렸다. 코란도 스포츠는 2150대, 코란도 C는 1580대, 코란도 투리스모는 807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경차 '레이'를 제외하고 모든 승용차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K9(-40.0%), K7(-27.5%), 프라이드(-21.1%)가 부진했다.

/[illegible]

서울호서 SEOUL HOSEO COLLEGE

수능·내신 없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지원자격 고졸이상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집전형 수능내신 미반영 100% 면접전형
입학특전 특별장학금 지급

14년 연속 취업률 100% 서울호서

서울호서 www.shoseo.ac.kr 입학문의 : 02-2662-0200 010-9145-0356
서울호서예술 www.koreaart.ac.kr 입학문의 : 02-2631-3200

임시국회 눈치보는 삼성전자·KT

단통법·방송법 및 IPTV 개정안 통과 될 경우 두 기업 타격 클듯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하 '단통법')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 해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유통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투명한 보조금 장려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 체제를 이끌어 단말기 출고가도 순차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케이블 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편도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로 각각 같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케이블 SO는 시장 가구 수(약 1500만 명)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IPTV법은 1개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약 2500만 명)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타격을 입는 것은 현재 IPTV와 위성방송을 유일하게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KT다. KT의 현재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하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27.1%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은 KT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통법은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도 좋지 못해 단통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법안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한다면 분위기로 봄 때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바라며 기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서희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다음, 음성 댓글 다는 기술 개발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스마트폰의 쓰임새가 더욱 다양해진다.

포털 다음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음성 인식 응용프로그램 개발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음성 인식 API는 스마트폰에서 한국어 음성을 인식한 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으로 웹 개발자들이 모바일 앱에서 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의 음성 인식 API는 2012년 말 다음이 인수한 음성 인식 전문기업 '다이알로이드'의 기술로 제작됐다. 이 기술은 단순한 키워드 인식을 넘어 연속 문장에 있어서도 높은 음성 인식률을 자랑한다.

이 기술은 현재 KT의 음성 인식 큐레이션 서비스인 '지니보이스'와 다음 앱에서 음성으로 간편하게 뉴스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음성 댓글' 서비스에 적용돼 있다. 그리고 이 API는 모바일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원돼 안드로이드 및 iOS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제공해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 개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구글 3년 연속 '입사 희망 외국계 기업' 1위

구글코리아가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순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캠퍼스 잡앤조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보름간 20~30대 구직자 18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7%(복수 응답)가 구글코리아를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으로 뽑았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애플코리아(18.9%), 스타벅스커피코리아(16.2%), BMW코리아(14.8%), 유한킴벌리(14.6%)가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파리바게뜨, 꽃과 초콜릿으로 사랑 전해요 파리바게뜨가 3일 오전 서울 동로구 삼청점에서 다양한 발렌타인데이 기념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본사 부지 7조원 매물 나온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84%에 달하는 시가 7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본사 부지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매각 대상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 부지 중에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옥(사진) 등 장부가 1000억원 상당의 부지만 11곳에 달해 매각 방법 및 매입 주체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3일 제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기존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총 51곳으로 매각 대상 부지는 54곳 246만4057㎡에 달한다.

매각 대상 부지 전체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84%에 달하는 수준이며 건물 연면적은 99만7880㎡다.

각 공공기관이 계산한 매각 대상 부지의 장부 가격은 총 5조7101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시가의 80% 가량을 장부 가격으로 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지의 시가는 최소 7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유주영기자 [illegible]

혈소판 응집 억제 및 혈액응고저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혈소판 응집 억제 및 혈액응고저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임상시험 책임자
   손기영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2. 참여대상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흡연자로 하루 평균 흡연량이 10개비 이상인 사람
3. 제외대상
   ① 심근경색, 협심증, 혈행장애 등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투여 중이거나 치료중인 사람
   ② 본 임상시험 전 2주 이내에 아스피린,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등을 투여했거나 투여하고 있는 사람
   ③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질환 등으로 치료중인 사람
   ④ 연구 시작 3개월 이내에 수술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심한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4. 참여기간 8주 동안 4회 방문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증감
5. 참여 시 혜택
   본 연구에 참여 시 전문 의료진의 혜택 진료 및 검사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제품에 대한 정보
   혈소판 응집 억제 및 혈액응고저해 효과가 예상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 중인 식품입니다.
7. 문의전화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02-2072-3336, 010-2266-3336)

SKT '무제한 데이터 로밍' 123개국으로 확대 SK텔레콤이 해외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One Pass)' 제공 국가를 12개국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 고객들은 123개국에서 데이터 무제한 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SK텔레콤 제공

쓸수록 돈 되는 리워드 앱

미션 참여 땐 실제 쓸 수 있는 포인트 보상…'포인트 락커' '도니캐시' 등 인기

설 연휴 지출을 메워주는 '리워드 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리워드 앱은 이용자가 광고 시청 등의 미션에 참여하면 누적 횟수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앱이다.

CJ의 리워드 앱 '포인트 락커'는 온라인 콘텐츠와 광고를 볼 때마다 '게이지'를 적립해준다. 콘텐츠에 댓글을 달면 4%, 앱에서 제공하는 광고나 뉴스 '바로 가기' 기능을 사용하면 2%, '슬라이드' 이용 시 1%의 게이지가 쌓이는 형식이다. 포인트 락커에 누적된 게이지가 100%에 도달하면 CJ그룹의 마일리지인 원(ONE) 포인트가 최소 100포인트에서 최대 5만 포인트까지 무작위로 지급된다. 원 포인트는 CJ 쿠폰몰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앱 출시 당시에 비해 게이지 누적 횟수가 줄어드는 등 포인트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아이폰에서는 내려받기가 어려운 것도 단점이다.

G마켓과 옥션에서 운영하는 리워드 앱 '도니캐시'는 탄탄한 유통망 속에서 급성장 중이다. 도니캐시는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추천 어플을 볼 경우 '돈'이란 포인트를 지급해 옥션과 G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투표 이벤트인 '미래찍기' 코너는 최근 포털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어느 이용자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인기 맴돈 '노블레스가 있을까?'란 글을 올리자 참여자들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노블레스를 키워드 검색한 것이다. 여론몰이란 지적도 있었으나 앱 홍보에 큰 효과를 봤다.

또 다른 리워드 앱 '미션피플'은 OX 퀴즈나 타자 미션에 참여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미션피플'은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임직원이 모여 만든 앱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직 출시 초기 단계라 안정적인 운영 능력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리워드 앱 원조인 앱디스코의 '애드라떼'는 바람세다 한때 '돈 버는 앱'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포인트 환급 지연 및 교환 상품 부족으로 회원 이탈을 겪고 있다. 1일 환급 신청 인원 제한 정책도 논란을 불렀다. 애드라떼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져 유통망이 탄탄한 후발 리워드 앱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양성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카톡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혁신 앱 최종 후보에

카카오톡이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 최종 후보에 올랐다.

카카오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체 GSMA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19회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자사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이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은 선물 시스템, 이모티콘 스토어, 모바일 소셜 게임 플랫폼 등을 모바일 메신저 처음으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종 수상자는 25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에서 발표된다. /장윤희기자

❖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

학사학위취득과정

사회교육과정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4. 1. 27(월) ~ 2. 28(금)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팩스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ice.mju.ac.kr)

문의전화 인문(서울) 02) 300-1805~6 자연(용인) 031) 330-6745~6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입생 모집 종로캠퍼스 (남·녀 공학)

■ 개설과정

■ 수강신청, 등록안내

접수기간	2014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접수방법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방문 접수(09:00~20:00)
개강일	2014년 3월 3일(월) ~ 3월 8일(토) 홈페이지 참조(http://adult.duksung.ac.kr)	문의처	(02)2011-1840~6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저가 보상제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발생시, 차액의 300%마일리지보상

최저가 가격비교 방법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항공과 호텔을 통합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동일조건 상품 구매시 차액확인

※ 자세한 사항은 하나투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오늘은 이만합시다.

영 어 Let's wrap it up for today

일본어 今日はこれまでにしましょう。

중국어 今天我们就到此为止吧。

노동부지원 근로수강 가능!

니트·패딩 자주 빨면 상해요

겨울옷 오래 입는 세탁법

고가의 니트나 패딩 같은 겨울옷은 세탁과 보관에 조금만 신경 쓰면 오랫동안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다.

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스웨터·카디건 등 겨울에 자주 입는 니트 제품은 되도록 빨지 않아야 오래 입는다.

물과 습기에 민감한 니트는 세탁뿐 아니라 보관을 잘못해도 곰팡이가 피기 쉽다. 따라서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보관 시에는 탈취제를 뿌려 서늘한 곳에 걸어둬야 옷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손빨래를 할 때는 울샴푸 같은 중성세제를 약 30도 물에 풀어 30~40분 담가 부드럽게 눌러준다. 세탁 후에는 수건에 말아 물기를 없앤 뒤 바람 부는 그늘에 널어둔다. 보풀은 일회용 면도기나 눈썹 칼로 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빤 니트는 옷 사이에 습자지나 신문을 넣어 보관해야 습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오리·거위 등 동물 털을 충전재로 사용한 패딩은 충전재가 뭉치지 않도록 세탁한다. 드라이클리닝보다는 중성세제나 다운 전용 세제를 이용해 손빨래를 해야 하는데, 지퍼와 벨크로는 반드시 채워야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다. 말릴 때는 옷을 뒤집어 바닥에 뉘어서 말리면 된다. 세탁한 패딩은 뭉쳐있는 충전재가 골고루 퍼지도록 손으로 두드린다. /이국환기자

겨우내 해충들 '씩' 웃는 집

바퀴벌레·초파리 동사한 줄 아셨죠?…물 많고 따뜻한 주방 곳곳 은신

환기가 쉽지 않은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집 안 청소에 소홀해진다. 하지만 방심한 사이 집 안 구석구석은 각종 해충의 온상이 되기 쉽다. 해충 방제업체 세스코 관계자는 "해충은 겨울에 활동량이 적지만 곳곳에 은신처를 마련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물이 많고 따뜻한 구석진 곳 등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기 청소로 바퀴벌레 퇴치

정수기가 있다면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를 주의해야 한다. 내부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은 겨울철 바퀴벌레의 서식에 적합한 따뜻한 온도를 맞춰주며, 저수통 내부에 있는 물은 바퀴벌레 생존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 준다. 특히 정수기는 구조 특성상 바퀴벌레가 이동 가능한 틈새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수통 주변과 정수기 내부 청소를 하는 게 좋다.

가스레인지나 조리대 근처 기름때도 바퀴벌레의 먹잇감이 되므로 바로 닦아내야 한다. 이 밖에 벽전등·가스경보기 등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는 곳이나 깨진 타일 틈새처럼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은 수시로 살펴본다.

◆배수구·수채통 깨끗이 비워야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기 쉽고 습한 싱크대 및 주방 배수구의 배관 역시 해충이 서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다. 싱크대 밑에 쌓인 유기물은 사계절 활동이 왕성한 나방파리나 초파리 유충에게 최고의 먹이가 된다. 이때는 싱크대 배수구에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섞은 물을 부었다가 30분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오염물질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해충 전문가들은 "청소 중 분변 등 해충의 흔적이 나왔다면 이미 상당히 번식했다는 증거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해충이 급속도로 번식하는 봄이 오기 전에 해충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지현기자 sjw@metroseoul.co.kr

길 가던 지름신 "반갑다, 화장품 할인"

토니모리·에뛰드 새해 행사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가 잇따라 새해맞이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토니모리는 6일까지 '새해 축하 빅세일'을 연다. 이 기간 플로리아 화이트닝 캡슐 에센스를 제외한 플로리아 화이트닝 라인을 50%, 인텐스 케어 스네일 크림·루미너스 등 안광채 씨씨밤 등은 30% 할인 판매한다. 세일 기간 동안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은 제한된다.

에뛰드도 4일까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30% 저렴하게 파는 '뉴 이어 위켄, 뉴 유' 행사를 진행한다. 기존 회원이 아니더라도 매장에서 신규 가입하면 당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국환기자

"P&G 제품 사고 유소년 스포츠 지원해요" 3일 오전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열린 '땡큐맘' 캠페인 소비자 이벤트에서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트 복장을 한 어린이 모델들이 P&G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 P&G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땡큐맘'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6일까지 2주간 P&G 제품 매출액의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통해 유소년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부한다. /손진영기자 son@

천재교육 자기주도학습지 '월간우등생' 3월호 이벤트

천재교육이 자기주도학습지 '2014 월간우등생학습' 3월호 이벤트를 진행한다.

월간우등생학습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능력별 학습 계획표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교재의 주된 특징은 올해 교육과정을 반영해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것이다. 그 외 새 학년 예습을 위한 '열린수학', 연 14회 시험대비구성 등이 포함된다.

해당 상품은 오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천재교육 에듀몬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가격은 12만 9000원.

휘닉스파크서 소치올림픽 종목 체험

8~9일 웰니스 페스티벌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맞이해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2014 휘닉스파크 웰니스 스노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휘닉스파크는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이벤트 대회는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휘닉스파크 익스트림파크에서는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인 슬로프스타일과 스키·보드 크로스대회가 열린다. 대회는 고객들에게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 신청은 휘닉스파크 홈페이지(www.pp.co.kr)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휘닉스파크는 페스티벌 기간 동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8일에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웰니스 눈썰매 완주왕전'이 펼쳐진다.

사전에 웰니스강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wellness.gw)에서 참가 접수를 해야 하며 입상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또 스키·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 힐링 피트니스'도 진행된다. 부상을 입은 운동선수나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는 물론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고 운동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9일에는 스노슈즈를 신고 해발 700m에 자리 잡은 웰니스 자유의 숲길을 걸어볼 수 있는 '웰니스 스노우슈잉 체험' 이벤트가 이어진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휘닉스파크와 함께 지식경제부 산하 강원산도 사업 프로젝트인 '웰니스+강원'이 함께 마련했다. /황재용기자

죽 먹고 반신욕…피로 훌훌

명절 후유증 극복 이렇게

매년 명절 직후 따라다니는 것이 명절 후유증이다. 명절 내내 운전과 가사 일로 시달린 이후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신경성 두통부터 소화불량, 근육통까지 증상도 다양하며 명절 이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방치 시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다. 흐트러진 생활 리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강한 명절 보내기 방법을 알아봤다.

◆과식·과음에 쉴틈 없던 위

사흘간 하루 세 끼를 갈비찜, 산적, 전, 잡채 등 기름진 명절 음식으로 먹게 되면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 위에 무리가 간다. 또 위산 분비가 촉진돼 위산 역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가 헐거나 염증이 생겨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 설에는 평소보다 상 위에 음식을 많이 올려놓아 과식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음식물 섭취가 늘어나면 위가 비정상으로 팽창해 제대로 음식물을 분쇄할 수 없어 소화장애가 일어난다.

소화불량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먹어야 하며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되는 나물이나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휴 직후에는 기름기가 없고 소화가 잘되는 죽을 먹어 속을 달래는 것도 방법이다. 곡식을 오래 끓여 알갱이를 무르게 한 죽은 소화가 잘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 명절 몸살… 마사지·스파로 예방

주부들은 명절 연휴 내내 음식 준비와 상차림에 바쁘다. 명절이 지난 후 긴장이 풀리다 보니 한꺼번에 몸살을 겪는 주부들도 있다. 음식 준비는 물론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친척과의 관계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명절 직후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반신욕이나 사우나는 생활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호텔업계에서 설 연휴 직후 벌이는 스파 행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 카페, 별걸 다 파네

상품권·텀블러·카드지갑 등 20~30대 여성고객 겨냥

커피전문점 업계가 커피 마니아들을 위한 실속과 품격을 동시에 갖춘 이색 세트 출시로 분주하다. 혼카페족을 위한 '더치커피', '드립백'에서부터 기프티콘, 정마 머그컵, 텀블러, 카드지갑, 미니어처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1만원 내외의 합리적 가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특히 프리미엄 커피 대중화 시대를 맞아 커피전문점 상품에 대한 20~30대 여성층의 수요가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주커피는 최근 '더치커피 세트'를 출시했다. 커피 명산지 최상급 원두인 케냐AA와 부드러운 신맛이 특징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2종으로 구성됐다. 정미의 해를 맞아 고급스러운 블랙 패키지에 말 문양을 새겨 넣는 등 특별 제작해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

할리스커피도 한정판 '기프트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했다. 소비자는 할리스커피 기프트카드에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 실속 있게 활용 가능하다. 말의 해를 맞아 말 복주머니 등의 아이콘을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다.

두썸플레이스는 최상급 콜롬비아 COE원두와 핸드드립 커피 제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담은 '핸드드립 프리미엄 세트'와 핸드드립 커피를 보다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핸드드립 와우치와 두썸 텀블러로 구성한 '텀블러 드립커피 세트' 등을 선보였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오는 15일까지 엔젤 무튼 컬러 머그 2개와 골드하우스 드립백 한 개로 이루어진 소(小)형과 엔젤 무튼 컬러 머그 2개, 금장 로고 에스프레소잔 2개와 콜라보레이션 텀블러·카드지갑 목걸이·골드하우스 드립백 두 개로 이루어진 대(大)형으로 구성된 세트를 판매한다.

탐앤탐스는 커피 스틱파우더 티엔커피메이커 티 등 총 6종 세트를 최근 출시했다. 정상 가격보다 최대 44%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돼 실속을 더했다. 가정과 사무실 야외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와 티 요거트파우더 제품은 비롯해 커피 또는 티를 직접 편리하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더치커피메이커와 티엔드커피메이커 등을 넣어 기호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다.

홈플러스 매장에서 LED 전구 체험해요

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한 고객이 LED 전구를 살펴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부터 백열등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체 수요 지원 차원에서 LED 전구를 중심으로 총 220여 종의 전구를 선보이고, 138개 전 점포 조명매장도 고객이 구매 전 전구를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체험형 매장'으로 새로 단장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술, 디자인에 한번 더 취하다

하이네켄·롯데주류 와인 등 콜라보 한정판 눈길

최근 주류업계에서 말의 해를 기념해 특별 디자인한 한정판 와인을 비롯해 병의 겉 표면에 UV 잉크를 처리해 화려함을 더하는 등 예술적 감각을 더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해 눈길을 끈다.

먼저 하이네켄은 UV 조명을 받게 되면 숨겨져 있던 화려한 디자인이 나타나는 '클럽 보틀(Club Bottle)'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세계적인 그래픽 아티스트 매트 무어(Matt W. Moore)의 독창적인 벡터 컬트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병의 마술을 선보이다(Unveil the magic of the night)'란 제품 설명이 말해주듯이 병의 겉 표면에 UV 잉크가 특수 처리돼 있다. UV 조명을 받으면 나타나게 되는 화려한 디자인은 병의 표면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화려한 색과 초록색 2가지 색상이 어우러져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게 된다.

또 롯데주류는 디자이너 이영희 씨와 말 박물관으로 유명한 와이너리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와인 '레 깔레쉬 드 라네쌍(Les Caleches De Lanessan)'을 선보인다.

이 제품은 프랑스 보르도 오메도크 지역에서 생산한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등급의 레드 와인으로 19세기부터 8대에 걸쳐 마구(馬具)와 마차를 수집·전시하며 '말 박물관'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이너리 '샤또 라네쌍(Chateau Lanessan)'의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다.

특히 한복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이영희 디자이너가 말을 전통 자개 문양 스타일로 디자인해 와인 라벨에 적용해 와인의 예술적 가치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2000병 한정 생산을 통해 희소성까지 높인 콜라보레이션 와인이다.

'비빔밥' 퍼포먼스 보며 명절증후군 타파

강강술래 고객 힐링 위해 이달 말까지 티켓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설 명절 이후 지친 고객들의 스트레스를 듣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경품 이벤트에서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인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을 모티브로 아카펠라, 비보잉, 비트박스 등 다채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버무린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 티켓을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한 여행이나 캠핑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이벤트도 벌인다.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칠한 우떡갈비(1박스·360g)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70%나 넣은 촉임자한 돈너비아니(2박스·720g) 구성의 '힐링세트'는 2만83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 보충에 좋으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은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mℓ-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mℓ-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100%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박스 2.16kg)는 3만1500원, 100% 자연치즈를 사용한 보차델라돈가스(3박스·2.16kg)는 3만6000원에 판매하며,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도 2만5200원에 선보인다.

한편 상계점은 이달 14일, 고양능곡농원점은 이달 28일까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권 상품권(최대 4장)을 증정하는 '새해 복 많이 대잔치'를 벌인다.

metro entertainment E

'쇼트트랙춤'의 멋 아직 모르세요?

타이틀곡 뭣 모르고 듣고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가물치**

"독특한 안무＋중독성 강한 노랫말 · 우린 남자 크레용팝 팀명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아 – 신화처럼 장수 그룹 되고파"

"신화 선배 같은 그룹이 되고 싶어요."

올 상반기 가요계는 아이돌과 솔로 가수들의 연이은 컴백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인그룹 가물치(로키 아토 지보우 보너스 큐)가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미니앨범 '비욘드 디 오션'의 타이틀곡 '뭣 모르고'로 데뷔했다. 크레용팝 후배 그룹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가물치는 독특한 안무와 중독성 강한 노랫말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

◆ 팀명 "어떤 애착심 생겼죠."

가물치는 크레용팝 추배라는 타이틀과 독특한 팀명 덕분에 데뷔 초 화제를 모았다. 무엇보다 가물치라는 이름은 팬들에게도 다소 황당했다. 래퍼이자 유학파로 영어에 능숙한 지보우는 "가물치가 물고기 이름인 줄도 몰랐다"며 "가요계 챔피언이 되라는 '골프'와 혁명을 일으키라는 의미에서 리볼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팀명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큐는 "대표님이 처음에 팀 이름을 가물치라고 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 데뷔 전이었으니까 바뀌겠지. 데뷔할 때는 다른 이름이겠지 라며 믿지 않았다"며 "그런데 가물치가 생존력과 지구력이 강한 물고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마음을 굳혔다. 이젠 애착심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 크레용팝 후배 가물치

이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크레용팝이 떠오른다. 길거리 홍보, 따라 하기 쉬운 안무 등이 흡사하다. 데뷔 앨범 '비욘드 디 오션'의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뭣 모르고'는 크레용팝의 히트곡 '빠빠빠'의 원곡을 변형한 버전이다. 크레용팝이 '직렬5기통춤'으로 지난해 가요계를 강타했다면 가물치는 '쇼트트랙춤', '지구방위대춤'을 선보였다.

"안무 포인트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팬들이 직접 이름을 붙여줬어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건 아니에요."(보너스)

데뷔 초 팬카페 회원은 1000여 명을 넘어섰다. 매일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팬과 소통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크레용팝 선배님들은 꾸준히 팬들과 족발 내기를 하는 등 꾸준히 소통하고 있죠. 저희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데뷔했잖아요. 팬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가물마?'라는 팬층이 생기나지 않을까요?"(웃음)

◆ 꿈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연기자부터 댄서까지 멤버 각자의 꿈은 달랐다. 덕분에 이들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 지보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갔다. 아이돌보다는 외국에서 힙합 음악을 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힙합 공연을 개최한 적도 있다. 앞으로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로키는 "연기자가 꿈이었다. 연기자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지훈 선배님을 보고 충격받았다. 정지훈 선배님처럼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 가수로도 데뷔하게 됐다. 연기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다"고 밝혔다.

창원대 무용경연대회 특상, SBS 스타킹 발굴 댄스무용경연대회 1등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한 막내 아토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줬고 가수보다 댄서를 원했다. 그런데 크레용팝의 데뷔 무대를 TV로 본 뒤 그런 스타일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춤과 노래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다"며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를 전했다.

보너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수가 가장 멋졌다. 장기자랑을 하는 무대가 있으면 꼭 섰다.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메인보컬 규는 "학창 시절부터 밴드 활동을 했다. 가수가 되고 싶다기보다 휘성 선배님 무대를 보고 나서 감동받아서 저렇게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그룹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가물치 멤버들은 "가물치가 장수하는 만큼 고개인 만큼 신화 선배님들처럼 장수하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illegible] yms@metroseoul.co.kr
사진/박동희(사운드지)기자 · 디자인/[illegible]

일본팬 3만6000명이 외쳤다 "2PM, 2PM"

나고야·요코하마 공연 성황리에 마쳐… 여섯빛깔 야광봉 물결 '장관'

오리콘 차트 1위로 새해를 맞이한 2PM이 아레나투어의 열기로 연도를 녹였다.

2PM은 설날 연휴도 반납한 채 지난달 27~28일 일본 나고야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요코하마에서 아레나투어 '제네시스 오브 2PM'을 개최했다. 요코하마에서는 총 3회 공연으로 3만6000여 명을 동원했다.

거대한 아레나를 압도하는 오프닝으로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2PM은 고유의 캐릭터인 짐승돌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함성을 고조시켰다.

남성미 넘치는 단체 무대뿐 아니라 음악적 섬세함과 개성이 느껴지는 솔로 무대로 콘서트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공연장은 1만2000명의 관객이 흔드는 여섯 가지 색깔의 야광봉으로 장관을 이뤘다.

2PM이 2일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아레나투어에서 새 앨범 수록곡을 부르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2PM은 투어 중인 지난 29일 일본 정규 3집 '제네시스 오브 2PM'을 발표해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나고야에서는 준호와 준케이, 요코하마에서는 찬성의 생일 파티가 공연 중 열려 팬들을 즐겁게 했다.

2PM은 "세 번째 아레나투어로 매회 설렘과 긴장 속에 팬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투어 중에 오리콘 1위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벅차올랐다"며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멋진 무대와 공연은 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PM은 나고야·요코하마에 이어 다음달 말까지 후쿠오카·오사카·도쿄까지 총 5개 도시에서 14회 공연으로 15만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역배우 김새론 "음주·흡연이라뇨?"

최근 음주 및 흡연 사진 논란에 휩싸인 아역배우 김새론(15)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해명글을 게재한 것에 이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새론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속 배우 김새론의 사진 및 글과 관련해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진과 함께 왜곡된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 결과 사진 촬영 당시 김새론은 부모님 동행하에 친구 집을 방문했고 다른 친구의 아버지 역시 동석해 계셨으며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절대 없었다"며 "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그날 처음 본 친구들이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날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과 김새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니 더 이상의 유추와 억측은 자제 부탁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새론은 2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몇 번 보지 않은 동네 친구였고 그 장소에 술·담배가 있는 줄 몰라서 죄송하다"며 술·담배 논란에 관한 해명글을 게재했다. /윤혜영기자

180도 김희선

'참 좋은 시절'서 도회적 이미지 탈피 경상도 사투리 쓰는 차해원 역 맡아

배우 김희선(사진)이 KBS2 새 주말극 '참 좋은 시절'로 데뷔 이래 최대 변신을 시도한다.

오는 22일 방송되는 '참 좋은 시절'에서 김희선은 차해원 역을 맡아 경상도 사투리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이색 변신을 앞두고 있다. 세련되고 도회적 이미지의 김희선은 보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할 만큼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다. 함께 출연하는 경상도 출신 류승수도 김희선에게 틈틈이 사투리를 지도해주며 격려해줬다"고 밝혔다.

서울 태생인 김희선이 이처럼 본토 발음에 능숙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고향이 모두 경상도이기 때문이다. 김희선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사투리의 악센트와 억양을 듣고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일찌감치 캐스팅된 이후 집중적으로 사투리 훈련을 받아온 것도 그 성과로 꼽힌다.

김희선은 "극중 리얼리티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사투리 구사는 해당 배우의 필수 과제다. 얼마나 비슷하게 구사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다. 억수로 사랑해주이소"라고 애교 섞인 포부를 밝혔다.

'참 좋은 시절'은 왕가네 식구들 후속으로 방송된다. /영상조기자 yuw@

B.A.P 부드럽고 섹시하게 돌아왔다

그룹 B.A.P가 신곡 '1004'를 통해 한층 부드럽고 섹시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B.A.P는 3일 첫 번째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빌리티'를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 담긴 13개의 트랙을 통해 B.A.P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는 등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타이틀곡 '1004' 뮤직비디오에서 드러난 이들의 스타일 변신이다.

앞서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004'에서 B.A.P의 콘셉트에 대해 "그동안 어필해온 '전사'의 이미지가 아닌 댄디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어필하는 성숙한 이미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1004' 뮤직비디오 속에서 선보인 안무는 그동안 B.A.P가 보여온 '전사'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담겨있다. 절제된 카리스마와 이별로 인한 끝없는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절규하는 남자의 모습을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로 완벽하게 담아냈다. 여기에 안무 중간중간 선보이는 골반 댄스는 섹시함까지 묻어난다.

한편 B.A.P는 다음달 8일과 9일 단독 공연 'B.A.P 라이브 온 어스 서울 2014'로 팬들과 만난다. /정성준기자

일본서 '강남스타일' 부르는 싸이

4월 'YG 패밀리 콘서트' 출연

'월드스타' 싸이(사진)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강남스타일' 무대를 선보인다.

싸이는 4월 12~1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과 5월 3~4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합동 공연인 '2014 YG 패밀리 콘서트'에 출연한다. 싸이는 '강남스타일' 발표 직전인 2012년 초 'YG 패밀리 콘서트'로 일본에서 공연했고, 당시 현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로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싸이는 국내에 '강남스타일'을 발매할 당시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롯폰기 스타일'로 개사한 곡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유독 일본 음악 시장에서만 냉랭한 분위기를 보여 이번 공연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만 21만 명을 동원할 'YG 패밀리 콘서트'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싸이·빅뱅·2NE1·에픽하이·이하이·위너를 비롯해 새롭게 YG에 합류한 가수들이 참여한다. /유순호기자

30%할인쿠폰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FASHION
CINEf
FOXlif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
CINEf
FX

정선아 김준수와 '한솥밥'

씨제스와 계약 "그는 한류 뮤지컬 이끌 주역"

뮤지컬스타 정선아(사진)와 김준수가 한 소속사 아래 뭉쳤다.

JYJ 김준수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3일 "정상의 뮤지컬 여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선아와 한 식구가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수와 정선아는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씨제스는 정선아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향후 재능 있고 잠재력 높은 배우들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백창주 씨제스 대표는 "김준수는 지난 4년간 뮤지컬의 대중화와 '한류 뮤지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며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선아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제작자들도 인정하는 독보적인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어 한류 뮤지컬을 이끄는 주역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씨제스의 종합 콘텐츠 비

즈니스 시스템과 영향력 있는 뉴 배우가 만난 시너지는 뮤지컬 매니지먼트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선아는 2002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해 '드림걸즈' '지킬앤하이드' '아이다' '에비타'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제19회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뮤지컬 '위키드'에서 글린다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한편 씨제스에는 JYJ를 비롯해 최민식·설경구·이정재·박성웅·송지효·거미·강혜정·박유환 등이 소속돼 있다. /박선영기자

가수로 보폭 넓히는 장근석

프로젝트 그룹 팀에이치와 솔로 두가지 공연으로 해외투어

한류스타 장근석이 올해 해외에서 가수로서의 위치를 넓힌다.

매년 일본 등 아시아 일대에서 투어를 진행해오고 있는 그는 올해 프로젝트 그룹인 팀에이치와 장근석 개인 두 가지로 공연을 분리해 해외 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자연스럽게 연기보다 가수 활동에 주력한다.

팀에이치 공연에서 가수로서 역량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디제잉 및 밴드 연주를 보여줄 수 있는 개인 공연을 별도로 진행해 해외에서 장근석이라는 브랜드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고 콘셉트에 대해 논의 중인 단계다. 특히 개인 공연은 대규모로 진행할지 아니면 제프 투어처럼 팬들과 가까이 만나는 소규모로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지난해에도 바빴는데 올해는 두 가지 투어를 동시에 진행해 더욱 바빠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5개 도시를 돌며 '직진 라이브 투어 인(in) 제프'를 펼친 장근석은 지난달 29~31일 마지막 공연을 열어 투어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장근석은 "그동안의 큰 무대들과 달리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밴드와 삼여해 같은 곡도 다르게 구성해 나가며 새로운 무대로 만들 수 있었기에 스스로도 즐길 수 있고 자랑스러웠던 투어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8일에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3000석 규모의 팬미팅을 열고 국내외 팬들을 만난다. /박선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직진 라이브 투어 in 제프를 펼치는 장근석 /트리제이컴퍼니 제공

"'신이 보낸 사람' 종교 단체 신천지와 관계 없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사진) 제작사가 종교단체 신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제작사 태풍코리아는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이 보낸 사람'과 신천지는 그 어떤 연관도 없음을 알려드린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신천지의 홍보 수단으로 이 영화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작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현재 제작사 측으로 신천지와의 관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는 자유, 희망, 믿음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자 제작됐다"면서 "앞으로 제작 의도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개봉할 '신이 보낸 사람'은 자유의 인권마저 잃은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참혹한 현실을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화 영화다. 김인권·홍경인 등이 출연한다. /박선영기자

우디 앨런 "성추행 사실 아냐"

세계적인 영화감독 우디 앨런(사진)이 양녀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앨런의 홍보담당자 레슬리 다트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양녀 성추행 의혹 기사를 읽은 앨런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앨런과 여배우 미아 패로의 입양아인 딜런은 전날 뉴욕타임스에 공개 서한을 보내 "7세 때 아버지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앨런은 이미 1992년 딜런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앨런은 그해 패로와 이혼했으며 1997년 패로의 입양아인 한국계 순이 프레빈과 결혼했다.

한편 앨런은 지난달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블루 재스민'으로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박은희기자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호프먼 사망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듯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필립 시모어 호프먼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6세.

미국 뉴욕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호프먼은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팔에 주사기를 꽂고 헤로인으로 보이는 물질이 담긴 비닐봉투를 옆에 놓은 채 숨져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경찰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약물 중독과 싸워온 호프먼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23년간의 금욕을 깨고 다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헤로인 복용으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 3' '부기 나이트' 등에서 개성 강한 캐릭터를 보여온 호프먼은 최근 '헝거게임' 시리즈로 인기를 누렸다. 주·조연을 넘나들며 개성 강한 연기를 보여준 호프먼은 2006년 영화 '카포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마스터'로 베니스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연극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토니상 후보에 세 번 올랐다. 최근에는 중년 남성의 맹목 추구를 다루는 코미디 시리즈 '해피시' 출연이 결정됐고, 감독 데뷔도 준비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유순호기자

미국의 남자 배우 필립 시모어 호프먼이 2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했으며 당국은 약물 과다 복용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2006년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그가 '카포티'에서의 호연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던 모습이다. /AP 뉴시스

허리·목 디스크 10분 고주파내시경 레이저로 끝!

기존 고주파 시술에서 진화… 재발·터진 디스크·퇴행성 협착증도 치료 가능

최근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국내 최고 보컬 가수 휘성은 군 복무 중 악화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제대 후 방송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휘성은 방송 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하게 됐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휘성의 상태를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 및 재발로 진단했다. 진단 후 이 원장은 국소마취하에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히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탈출된 추간판은 수축되면서 제자리를 찾았고 통증은 호전돼 휘성은 시술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휘성은 곧바로 방송 활동에 복귀했으며 현재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된 상태에서 활발한 방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가수 휘성 시술 직후에는 유명 배우 K씨도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강남조이스병원을 내원해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K씨도 증상이 호전돼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에서 시행하는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으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이승주 원장(오른쪽)과 가수 휘성.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성인병·노인 환자 등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강남조이스에서는 치료 가능해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은 수술을 두려워하는 환자나 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노인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술은 국소마취 후 1.5mm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넣어 환부를 의사가 직접 들여다보며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레이저를 이용해 돌출된 디스크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내시경으로 병변의 염증을 볼 수 있어 작은 병변까지 제거가 가능하고 부분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와 같이 수술이 힘든 환자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욱이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주로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은 경막외 신경 치료술, 고주파 디스크 치료,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등 내원 환자의 질환에 맞는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은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아 눌린 신경의 압박과 통증을 해소하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로 약해진 관절과 근육 등을 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의 서울대입구역 본원 02)875-2200, 여의도점 02)786-2200, 홍대점 02)336-2200 /황재용기자

계단걷기 통증 땐 초기…O자 변형 땐 말기

퇴행성관절염 증상 및 단계별 적절한 치료법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인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퇴행성관절염이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최근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환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들과 따로 살다 보니 자식들이 부모의 질환 발병 사실을 조기에 알아차리기 어렵고 부모들 역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질환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행성관절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퇴행성관절염은 흔한 질환이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심하면 우울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 변형이나 걸음걸이, 통증으로 무의식 중에 내뱉는 소리가 있다면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사물을 잡거나 기대고 일어나는 경우 ▲오래 걷지 못하고 움직임이 둔해져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휘거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 ▲무릎 관절 주위를 자주 만지거나 무릎이 자주 붓는 경우 등이 퇴행성관절염에 해당된다.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의 손상 정도와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나뉘는데 우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면 초기, 자리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양반다리를 하다 자세를 바꿀 때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다면 중기로 볼 수 있다. 또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상태인 말기는 걸을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변형되는 특징이 있다.

조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요법, 운동치료 등으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며 중기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관절내시경을 통해 연골 손상 정도를 파악한 후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손상돼 없어진 무릎 연골 대신 인공관절을 넣어 통증을 없애고 운동 범위를 확보하는 수술로 최근에는 70~80대의 고령층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송상호 웰튼병원 원장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행동과 신체 변화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 관절염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yoo08@metroseoul.co.kr

굽 높은 롱부츠 위 척추 휘청

관절질환 유발하는 신발들

겨울철이면 허리 및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난다. 추운 날씨에도 멋을 위해 선택한 롱부츠, 어그부츠, 하이힐 등이 관절에 이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먼저 굽이 6cm 이상인 롱부츠를 즐겨 신는 여성들의 경우는 앞쪽으로 쏠리는 자세로 인해 골반이 틀어지기 쉽다.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척추가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척추전만증이 생길 수 있다.

하이힐을 신을 때는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을 조심해야 한다. 선천적인 평발이나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 쉽게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볼이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 착용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하이힐을 자주 신어 증상이 심해지면 무릎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 등 2차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굽이 낮고 편안한 어그부츠는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굴곡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어그부츠라도 쿠션감이 있는 부츠를 신는 것이 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또 어그부츠를 신은 날에는 집에 돌아와 발바닥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보영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장시간 하이힐이나 부츠를 신으면 근육과 인대가 굳어지며 특히 종아리를 감싸는 부츠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만성 요통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실내에서는 편안한 신발로 바꿔 신거나 외출 전후에는 족욕이나 스트레칭으로 발과 관절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설기자

시애틀 창단 첫 슈퍼볼 우승 3일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포드 메트라이프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 NFL 2014 슈퍼볼에서 시애틀 시호크스의 쿼터백 러셀 윌슨이 우승 트로피 빈스 롬바르디를 들어 올리고 있다. 초반부터 만허 브롱코스를 압박하며 43-8로 완승을 거둔 시애틀은 창단 38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AP 연합뉴스

● 1인용 침대 좁은 편 ● 김치, 고춧가루 버무린 채소 ● 칸막이 없는 2인용 변기

'불편 덩어리' 소치 선수촌

sochi.ru 2014 D-3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준비에 무려 500억 달러(약 5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선수촌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소치에 도착해 결전의 마음으로 선수촌에 짐을 푼 선수단은 하나같이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아(23)를 제외한 대표팀 선수 대부분은 대회 기간에 선수촌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빙상과 컬링 선수단은 올림픽 파크가 있는 해안 클러스터 선수촌에 묵고, 썰매 종목 선수단은 산악 클러스터 선수촌에 입촌했다. 그러나 모두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비해 좁고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악 클러스터에 묵는 종목 대표팀의 한 코치는 "밴쿠버올림픽의 선

소치올림픽 쌍둥이 변기 /AP 연합뉴스

수촌 숙소는 거실과 방이 달린 아파트 형태여서 선수단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전략도 구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곳은 방의 공간이 비좁은 것은 아니지만 2인 1실의 단칸방 형식이어서 선수단을 관리하는 게 쉬지 않다"고 말했다.

해안 클러스터의 선수촌에 묵는 선수단 관계자도 "침대가 성인 한 명이 자기에는 좁은 편"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식사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선수단 관계자는 "식당 한식 코너에 김치가 나오지만 고춧가루에 버무린 채소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미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칸막이 없는 화장실은 개선하겠다던 조직위원회의 해명과 달리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며 러시아 소치의 올림픽 해안 클러스터 내 메인미디어센터(MMC) 근처 여성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칸막이 없는 화장실이 발견됐다. 화장실 한 칸에 변기 2개가 설치된 '쌍둥이 변기'로 지난달 바이애슬론 경기장 내 화장실에서 영국 공영방송 BBC 통신원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면서 처음 발견됐다.

사진이 공개되고 난 뒤 누리꾼 사이에서는 소치올림픽 예산이 허투루 쓰인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병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박주영 데뷔전 '짧지만 반가운 5분'

96일만에 그라운드 밟아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왓포드로 '깜짝' 임대 이적한 박주영(29·사진)이 96일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박주영은 3일 영국 왓포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브라이턴 호브 앨비언과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교체 투입됐다. 아스널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30일 첼시와의 캐피털원컵 16강전 후반 36분 교체 투입 후 96일 만이다. 박주영은 5분 정도밖에 뛰지 못해 이렇다 할 활약은 보여주지는 못했다.

한편 신소림크 박지성(33·에인트호번)이 네덜란드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3경기 연속 선발 출장했지만 팀은 쳐하위 팀에 덜미를 잡혔다.

에인트호번은 이날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발베이크의 만데마케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에레디비지에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2로 완패했다.

/유성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3일

신한은행	18	10	15	22	65
KDB생명	15	19	18	6	58

홍명보호 조용한 귀국 · "조직력 보완해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3주간의 전지훈련과 세 차례 평가전을 마치고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평가전에서 1승2패의 성적을 거둔 대표팀은 2일 미국전을 마지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공항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홍 감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남아 곧 유럽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세 차례 평가전에서 1골 밖에 넣지 못한 공격진 보강을 위해 유럽에서 활약하는 해외파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면담을 할 예정이다. 박지성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세 차례 평가전에서 무득점에 그친 공격수 이근호(상주)는 이날 브라질 월드컵 본선 엔트리에 들기 위해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열심히 준비했지만 체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과 맞서려면 조직력 등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마인츠) 등 해외파 공격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해외파가 잘하면 대표팀에 큰 힘이 된다"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더 노력해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해외파 선수들과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팀은 이날 곧바로 해산해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간 뒤 다음 달 6일(한국시간)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재소집된다.

/김학철기자 [illegible]

"물건이네! 물건이야~"

남성(性) 희소식

성기내 혈액유입 장애로 인해

· 장자리에 자신없는 분
· 자연스러운 부부생활이 어려우신 분
· 부부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
· 음경이 예전같지 않으신 분

40대부터 70, 80대의 분들도 간편히 사용가능하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이텍이 원하는 목적을 멋지고 당당하게 달성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조이텍의 특징 -

Event 할인행사 개업 10주년 3개월간 할인행사실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588-6825

한국장학재단

Kormént

멘토와 함께
인생의 지도를 펼치다!

한국인재멘토링네트워크 지도자급 멘토링에 함께 할 대학생 멘티를 모집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대학생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와 드리는 기회,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제5기 한국인재멘토링네트워크 지도자급 멘토링」

대학생 코멘티 모집 공고

모집요강

- 활동기간 2014년 3월 ~ 12월
- 모집기간 2014. 2. 3(월) ~ 2. 14(금) 23시 59분, 12일간
  ＊일부 기간 변동 가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제출서류 지원서(온라인작성), 성적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등

멘티 지원사항

- 코멘트데이, 리더십캠프(콘서트) 등 행사 참가(비용 없음)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 신청 자격 부여
- 일정 기준 충족시 수료증 수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 우수활동 멘티대상 기업연계 인재추천 기회 제공(멘토 추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